

운송/조선/기계 Analyst 배기연 RA 오정하

02. 6454-4879  
kiyeon.bae@meritz.co.kr02. 6454-4873  
jungha.oh@meritz.co.kr

2022. 11. 2 (수)



## 국내외 주요 지표 현황

## 건화물운임(BDI)

1,377.0p(-86.0p DoD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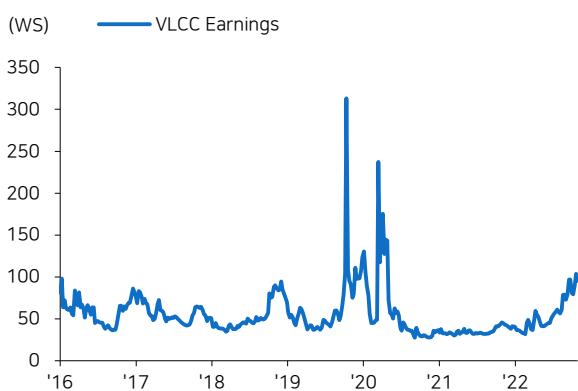
## 컨테이너운임(SCFI)

1,697.7p(-81.0p WoW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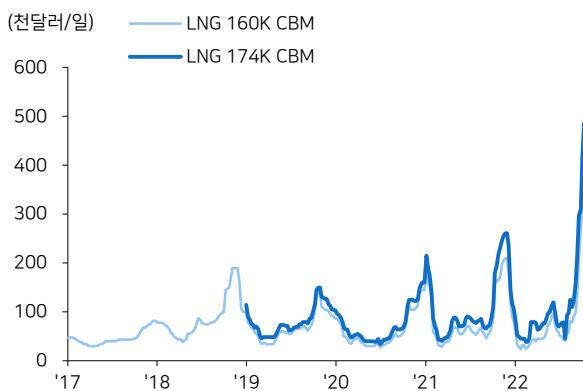


## VLCC Spot Rate

95.6p(-8.2p WoW)



## LNG Spot 운임

447.5p(+5.0p WoW)  
485.0p(+0.0p WoW)

## 신조선가 및 중고선가

162.0p(+0.1p WoW)  
175.0p(+0.3p WoW)

## 항공시장 지표

230.4p(-0.6p DoD)  
91.1p(+1.1p DoD)

자료: Clarksons, Bloomberg,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

##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

### US delays start of Russian oil price cap amid industry fears

미국이 러시아 원유 가격 상한제 도입을 연기했다고 보도됨. 러시아산 원유는 미국 재무부의 방침에 따라 이제 1월 19일까지 방출될 수 있음. 추가 45일이 허용된 것으로 알려짐. 가격상한선이 정해지지는 않았지만,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약 63달러/배럴 수준으로 알려짐. (Tradewinds)

### Ukraine grain exports were at 85% of pre-conflict levels, says Clarksons

러시아의 곡물협정 종단 선언 이전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량이 전쟁 전 대비 85% 수준까지 상승했다고 보도됨. Clarksons 집계에 따르면 8월초 이후 약 900만톤이 수출됨. 러시아 침공 이전 우크라이나는 2021년 글로벌 곡물 해상 수출량의 약 10% 비중을 차지한 바 있음. 한편, 8월초 이후 Handysize가 44%, Handymax가 29%, Panamax가 26%의 물동량을 수송함. (Tradewinds)

### 삼성중공업, 나이지리아 사업장 추가투자 검토…'2.4조' 해양플랜트 정조준

삼성중공업이 나이지리아에서 선박 건조를 가능하게 위한 노동력 및 제조환경 조성에 투자한다고 보도됨. 삼성중공업이 나이지리아 사업장에 투자를 결심한 건 20억 달러(약 2조4000억원) 규모의 나이지리아 해양플랜트 사업을 정조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함. 봉가 프로젝트 FPSO 공사를 2년 더 연기하면서 수주 결과도 뒤로 밀려났지만 나이지리아 초대형 해양 프로젝트 입찰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고 알려짐. (더 구루)

### Clarksons projects 5% demand jump in strong-looking 2024 tanker market

Clarksons가 유조선 시장의 2024년 수요 5% 증가를 전망했다고 보도됨. 현재 수주잔고 고려 시 선대는 2% 감소하겠으나 원유 교역량 3.5% 증가 등 요인으로 수요는 약 5% 증가를 전망함. 중동, 미국 및 브라질 생산량이 증가하고, 주요 지역의 정제설비 capacity가 증가할 예정임. (Tradewinds)

### 3분기 온라인쇼핑 거래액 증가

1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3분기 온라인 쇼핑 거래액은 52.3조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2.3% 증가했다고 보도됨. 상품군별로는 문화·레저·여행·교통 등 부문에서 거래액 증가가 두드러졌다고 언급됨. 문화 및 레저서비스 거래액이 전년동기대비 156.9% 증가, 여행 및 교통서비스 거래액은 123.8% 증가했다고 알려짐. (머니s)

### 애경그룹, 제주항공에 1,098억원 출자… "코로나19 이후 세번째"

AK홀딩스가 제주항공에 약 1,097.7억원 규모 출자를 단행했다고 보도됨. 팬데믹 이후 세 번째 대규모 출자임. 출자는 오는 14일으로 예정되어 있음. AK홀딩스는 이번 유상증자에 참여하기 위해 지난 10월 1,300억원 규모 교환사채를 발행한 바 있음. 이번 출자는 제주항공의 차세대 기단 도입을 위한 자금 조달으로 설명함. (뉴시스)

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. 당사는 자료작성을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%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  
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이 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.

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,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.

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.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.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.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.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, 대여, 배포 될 수 없습니다.